

김석범 ‘화산섬’에 묘사된 김시중의 제주 4·3 체험

오카자키 료코 (리쓰메이칸대학)

1. 시작하며

재일조선인 1세 김시중(1929~)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시인이다. 그는 식민지 조선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1949년 도일하기까지 제주도에서 지냈다. 광복 후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하 제주 4·3)이 발발하자 김시중은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연락책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됐고 194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따라서 도일의 계기가 된 제주 4·3은 김시중 문학 작품의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김시중은 200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제주 4·3 체험을 고백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제주 4·3 체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도 김시중의 제주 4·3 체험은 간접적, 단편적으로나마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묘사되었고 김시중 이외의 문학가들도 묘사해 왔다. 이에 본 발표의 큰 목적은 2000년도 본인 체험 고백 전 김시중의 체험은 어떻게 기록되고 문학 작품 속에서 표현되어 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김시중이 2000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제주 4·3 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편, 재일조선인 2세 작가 김석범(1925-)은 장편소설 ‘화산섬’에서 김시중의 4·3 체험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김석범의 ‘화산섬’은 1976년부터 1994년에 걸쳐 발표된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이다. 제주 4·3이 발생한 당시의 제주도와 일본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 속에는 김시중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 김시중 본인의 체험 증언과 묘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1년 김석범과 김시중의 대담록 제목이기도 한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에서 알 수 있듯 김시중이 4·3 체험이나 그 자체에 대해 침묵해온 것과 반대로 김석범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제주 4·3을 그려왔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김시중의 제주 4·3 증언과 김석범이 ‘화산섬’에서 쓴 김시중의 체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 김시중이 제주 4·3 체험에 대해 침묵한 반면 김석범은 겪지도 않은 사건을 썼다는 점의 의미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체험, 기억을 쓴다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하고 제주 4·3 체험 쓴 행위를 사건과 그 트라우마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다음으로 ‘화산섬’의 작품 분석을 통해 김시중의 ‘우체국 사건’ 체험 증언과 김석범 ‘화산섬’의 묘사를 비교, 분석하여 사건 체험자가 쓴 문학 작품과 사건 체험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쓴 문학 작품의 차이에 대해 고찰한다.

2. 체험을 쓴다는 것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 김시중의 작품 혹은 인생사를 생각해보면 제주 4·3은 그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모종의 ‘상처’로 남아 아물지 않은 채 안고 가야 할 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시중이 목격한 수많은 참혹한 죽음은 그 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트라우마’로 남았음에 틀림 없다. 그러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재조명되는지, 어떤 식으로 그 후의 인생에 다시금 기억으로써 등장하는지를 문학 작품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김시중 문학 읽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베셀 반데어 콜크는 기억이란 화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했고 이와는 대조적으

로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의 경우 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의 선명함은 변치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지어 자식이나 친구가 사고로 다치는 것을 보는 등의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사건을 강렬한 기억으로써 꽤 정확히 기억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분석 결과는 김시중이 제주 4·3으로 인해 품게 된 기억, 트라우마의 관계성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시중의 작품에는 부분 부분 제주 4·3의 체험이 바탕이 된 듯한 표현과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5월18일에 발생한 광주 5.18은 제주 4·3을 상기시켰을 것이며 (‘광주시편’), 2011년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또한 그의 제주 4·3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등의 지도’). 이 밖에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제주 4·3 진상 규명, 유해 발굴, 체험자 증언 수집, 제주도 방문, 글을 통한 부모와의 대화는 그를 단숨에 70년 전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살아있음과 동시에 과거를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 혹은 남겨진 감각은 김시중의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직면할 때마다 제주 4·3 시대로 돌아와 다시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3. 김석범 ‘화산섬’에 그려진 김시중의 제주 4·3 체험

김석범 ‘화산섬’은 이른 단계의 제주 4·3을 주제로 그린 장편소설이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9장까지는 제주 4·3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제주 4·3 무장 봉기가 일어난 직후까지의 서울 및 일본의 상황을 주인공 리방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10~12장까지는 무장봉기가 일어난 직후부터 한 달 뒤 단독 선거가 실시되는 1948년 5월까지의 제주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산섬’은 김시중의 제주 4·3 체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제주도 관덕정 광장 옆 중앙 우체국에서 벌어진 일, 즉 김시중이 언급한 우체국 사건이다. 김시중은 우체국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로, 이로 인해 군경에 쫓기는 신세가 돼 도일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김시중의 체험 증언과 화산섬 내용을 대조하며 우체국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김시중이 증언한 ‘우체국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제주 4·3이 발발할 당시 김시중은 남로당의 연락책이었다. 1948년 5월 중앙 우체국 연락 담당이던 남로당원 2명이 처형된데 대한 보복이었고 김시중은 또 다른 당원 H가 우체국 우편물을 화염병으로 폭파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 했다. 다음은 김시중이 우체국 사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저와 엇갈리며, 화염병을 던지는 역할의 H군이 우표를 사겠다며 들어옵니다. ...중략...그는 화염병 꾸러미를 든 채 영문 모를 목소리로 절규하는 바람에 우체국 안에 있던 경비 중 경관이 카빈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도망치면서 힘없이 던진 화염병은 별다른 발화도 못한 채 하얀 연기와 냄새만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가장 안쪽 문으로 달려 밀고 나갔고 가운데 문에 몸을 부딪치며 그 다음 문에 매달리듯 황황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당겨야 나갈 수 있는데 필사적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을 주먹만 하게 부릅뜨고는 새하얀 H군의 눈이 또렷이 내 뇌리에 박힌 순간이었습니다. 뒤쫓아오던 경관이 지근 거리에서 카빈총을 연사했고 뒷통수가 날아간 H는 그 문에 매달린 채 절명했습니다.

이처럼 ‘우체국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김시중은 쫓기는 신세가 됐고 다른 당원 역시 우체국에서 도주에 실패해 경찰관의 총에 사망했다.

다음으로 ‘화산섬’에서의 우체국 사건 기술 내용을 살펴본다. ‘우체국 사건’에 대한 서술은 제10장(1983년 ‘화산섬’ 제Ⅲ권)에 묘사되어 있다. 화산도 주인공 리방근이 사건이 일어나는 관덕정 옆에 위치한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 우체국 안에서 도망치려는 소년 두 명을 목격하면서 사건의 묘사가 시작된다.

‘열어! 저리 비켜!/들리지는 않지만 분명 청년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멍청아, 거기서 비켜! 어서, 문은 비울 테니 밀어, 비켜, 비켜, 빨리 비켜!’/유리에 가려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바깥의 청년은 문 한가운데 나무틀에 몸을 부딪히며 안쪽으로 밀어보려 했지만 상대는 그 반동으로 더욱 필사적으로 밀어낸다. 안쪽 편 청년은 당황할 대로 당황해 우체국 문이 밖에서 안으로 미는 구조임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답답할 정도로 바보 같은, 보고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온 한 남자가 내리친 곤봉 일격이 청년의 머리 위에 작렬하는 장면이 유리 너머로 보였다. 젊은이의 비명 소리. 두 세 번 곤봉이 내려쳐졌다. 까악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려왔다.

여기서 묘사된 우체국에서 도망치려던 두 소년의 행동은 위의 김시중이 증언한 ‘우체국 사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우체국 현장은 또한 증언과 작품에서도 일치한다. 심지어 ‘바깥에 있던 청년’(우체국에서 도망친 청년)은 김시중이고, ‘안쪽 청년’(우체국에서 도망치지 못한 청년)은 김시중이 증언한 소년 H라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화산섬’에서 ‘우체국 사건’은 리방근이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해 사건의 일부 소년들이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설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리방근은 소년들을 목격한 뒤 우체국에 들어가 우체국원에게서 소년 두 명이 도망치기 전의 경위를 물었고 그곳에서 소년 2명이 5.10탄선(단독선거) 결사 반대를 외치며 빠라 뭉치를 천장 중앙으로 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시중의 체험 증언과 ‘화산섬’내의 묘사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인용문 밑줄 참조). 먼저 김시중의 증언에서는 ‘H’가 우편물에 ‘화염병’을 던졌다는 내용이, ‘화산섬’에서는 ‘청년’이 ‘빠라’를 뿌렸다는 내용으로 대체된 점이다. 다음으로 김시중의 증언에서는 ‘H’가 ‘경비 경관’에 의해 카빈총으로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화산섬’에서는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 김시중의 증언에는 없었던 일들이 ‘화산섬’에 그려져 있다. 소년 사건 중 주변 모습에 대한 상세한 묘사, 두 사람의 대화와 일련의 동작, ‘바깥에 있던 청년’(김시중)이 ‘안쪽 청년’(H)를 도우려 했던 점, 거기에 있던 한 인물이 ‘바깥쪽 청년’들을 향해 ‘도망쳐!’라고 외친 점 등이다. 이상과 같이 김석범은 김시중이 겪었던 사건을 조금씩 비틀어 가며 사건 당시의 긴박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4. 마치며

마지막으로 김시중이 제주 4·3 체험에 대해 침묵하는 한편 김석범은 겪지 않은 사건을 썼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김시중은 제주 4·3을 쓴 김석범에 대해 ‘석범 형님은 40년에 걸쳐 4·3을 끊임없이 써왔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생각을 떠올리려 하면, 그대로 굳은 채 한꺼번에 확 올라오니 말문이 막혔다.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범은 ‘나에게 있어 현

실의 4·3은 빼만 본 것에 불과하지만 가까이 시종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경우 현장에 없던 채 돌아왔다. 아무래도 나는 구경꾼, 외부인이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김석범은 김시종이라는 제주 4·3의 실존인물을 통해 ‘외부인’의 입장을 취하며 김시종의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써 나간 것이다. 그때 김석범은 리방근이 두 젊은이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목격하는 설정을 택했다. 그 배경에는 김석범 자신이 김시종이 체험한 ‘우체국 사건’의 목격자, 즉 제주4·3 목격자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金時鐘 『朝鮮と日本に生きる』 岩波書店、2015年

金石範 『火山島』 第Ⅲ巻、文藝春秋、1983年、第五刷版、1986年

金石範, 金時鐘著、文京洙編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2015年